

강진군 노후방조제 개선 기상이변 적극 대응키로

신전면 논정방조제 개·보수 국비 88억...내달 실시설계

강진군이 국비 88억원을 확보해 노후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나선다. 강진군은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태풍·해일 등에 대한 재해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전면 논정방조제를 개·

보수한다. 논정방조제는 지난 2002년 최종 준공됐으나 매년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균은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군은 다음달부터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설계설 명회를 거쳐 2015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착공하게 된다. 또한 사석보강 및 암사석 덧쌓기,

와이어 로프 보수·보강, 저류지 담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장 신설, 지진 발생시 비상전류 공급용 발전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부터 513ha 농경지(122농가)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쌀 생산량 증대와 품질개선을 통해 농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모란꽃, 찬란한 슬픔의 봄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에 위치한 영랑 김윤식 시인(1903~1950)의 생가에 모란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 주옥같은 서정시 창작 산실인 영랑생가는 중요민속자료 제252호로 지정돼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나주농업센터 영농교육생 모집

귀농·귀촌자 40명 대상 농산물 마케팅 등 교육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민관)는 귀농·귀촌자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농 기초교육생 40명을 모집한다. 교육일정은 24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5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6회(총 39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영농자금 활용 ▲나주 농업기상정보 활용 ▲영농설계 및 농장경영관리 ▲농산물 마케팅 ▲생약초의 약리효과와 이용 확대방안

▲귀농 사례 ▲좋은 토양만들기 등 농촌생활적응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 등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신청방법은 나주시 홈페이지(www.naju.go.kr) 게시판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농촌진흥과 및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061-339-7425) 나주시 관계자는 "수로 후에도 교육생들에게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귀농 정착 프로그램과 연계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희기자 ycon@



강진경찰 4대악 캠페인 강진경찰서(서장 한영록)는 최근 강진읍 일대에서 40여 개 주요 기관·단체장과 직원 및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범군민 캠페인을 벌였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담양 우수 농·특산물 판매전' 개최

27일까지 광주 롯데백화점

'담양 우수 농·특산물 특별 판매전'이 22일부터 27일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관에서 열린다. 담양군과 롯데백화점, 지역 농·식품업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담양 우수 농특산물 생산업체 11곳이 참여한 가운데 '대송꽃은 담양 쌀'을 비롯해 안숙 토마토, 대추 토마토, 파프리카, 대일송, 타임양스(전통주), 기순도 전통장류, 쌀초침, 식

해, 김치류, 딸기잼, 죽제소금, 죽제 품 등 100여 개 품목을 판매한다. 군과 지역 농·식품업체는 이번 특별 판매전을 통해 백화점의 주요 고객층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한편 고정 납품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군은 이번 특별 판매전을 시작으로 롯데백화점 전국매장을 순회하며 '생태도시' 담양의 농·특산물을 판매 홍보할 계획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장흥지역자활센터 설립 10주년 기념식

장흥지역자활센터(센터장 위수미·이하 자활센터)가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4년 문을 연 자활센터는 '함께 나누면 행복합니다'라는 비전을 갖고 지역공동체 안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자립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자활센터는 10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을 묵묵히 수행한 결

과 현재 10개 자활기업에서 23명이 자활에 성공해 창업했고, 8개 사업단에서 70명, 6개 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100명이 자활자립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자활센터는 지난 18일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참여자 전체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위수미 센터장은 "사회 안전망 구축에 다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부장

전북

순창 '작은 영화관'·'공공승마장' 조성 탄력

2015년까지 건립 예정 순창읍 옛 삼양공장 부지 팔덕면 옛 군부대 일원 등

순창군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작은 영화관'과 공공 승마장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순창군은 "최근 열린 '제2차 순창군 계획위원회'에서 '작은 영화관'과 공공 승마장 조성사업에 대해 원안 의결 및 조건부 의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은 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옛 삼양공장에 총 47억

원을 들여 '작은 영화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전시관 등을 2015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순창 공공승마장 조성예 따른 군 관리계획(체육시설)은 진입로 확장 개선을 조건으로 의결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순창 공공 승마장 조성사업은 팔덕면 구룡리 옛 군부대 일원에 총 34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실내마장과 실외마장, 마사, 방목장 등을 조성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11월 전주 기전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승마장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방안에 대해 상호 협력기로 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순창 공공승마장이 조성되면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레저활동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유소년 승마체험, 스포츠교실 운영, 승마힐링 과정 운영 등 강천산 수변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연계한 체험 및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영화관람 및 승마체험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작은영화관 부지

공공승마장 조감도



첫 모내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최근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들녘에서 모내기가 본격 시작됐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전주 삼천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선정

전주시 평생교육원(원장 성하준) 완산도서관 삼천 분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삼천 도서관은 앞으로 '천년 전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연과 탐방체험 프로그램을 각

각 4회 운영할 계획이다. 월별 프로그램은 ▲5월 '후백제 왕도 전주, 견훤과의 만남' ▲6월 '대조이성계와 전복' ▲9월 '전주 사고(史庫)와 조선 왕조실록' ▲10월 '작가 최명희와 소설 혼불, 그 천의 의미' 등이다. /전주·부인=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정읍의사회 의료비 지원 협약식

정읍시와 정읍의사회(회장 박부상)는 최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눔복지 행복바이러스 운동'의 일환으로 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시와 의사회는 각종 질환을 앓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

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필요 한 제반 사항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 지원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친환경 벼 재배단지 제조용 새끼우렁이 공급

순창군이 올해 무농약 이상 친환경 벼 재배단지의 확대 조성을 위해 5700만원을 투입, 520ha의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제조용 새끼우렁이를 공급한다. 군은 금파면 방축리에 우렁이 양식장(2동)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올해 친환경 벼 재배단지와 관행 벼 재

배단지 농가들이 제조용 새끼우렁이로 사용할 우렁이(연간 6.3t)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9개 읍·면에서 친환경 벼 재배 단지를 신청·추진하고 있어 총 400여ha에 이르는 면적이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보건소, 신입 공중보건의 16명 배치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최근 신규 및 전입 공중보건의 16명을 보건소와 각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했다. 이번 배치된 신규 및 전입 공중보건의는 내과·정신과·재활의학과 전문의 등 의과 9명을 비롯해 치과 3명, 한의과 4명이다. 시 관계자는 "복무 만료자보다 2

명이 늘어 적체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2020년까지는 공중보건의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돼 이동진료 실시 방법 등으로 진료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정읍시·경찰 '뉴 내장산 운동' 동참

백양꽃 6만본 식재 지속적 관리 약속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운석)가 추진하는 '뉴 내장산 백년대계 운동'에 정읍시와 정읍경찰서 각 협력단체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 정읍시는 내장산 국립공원 일원에 백양꽃 6만본을 식재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정읍경찰서 민원봉사위원회(위원장 이종환)와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권순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위원장 김호일), 의경 어머니회(회장 박현숙), 녹색어머니 연합회(회장 조혜심)도 뉴 내장산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내장산 사무소는 내장산의 미래를 만들어가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야생화'를 선정해 가을단풍과 함께 내장산 국립공원의 사계절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백양꽃은 내장산에서 자생하는 수선화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8~9월에 개화해 내장산의 새로운 여름철 명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운석 소장은 "정읍의 발전을 위해서 내장산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지역사회가 협업을 통해 내장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내장산 백년대계 운동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